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3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얼음 깨기

나의 한 주간 이야기

지난 한 주간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좋은 일 힘든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내가 느꼈던 마음, 감정에 관한 단어 2개를 선택하여, 목장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보고, 이유도 나누어 봅니다.

감격스러운	감사한	든든한	뭉클한	포근한
걱정되는	고단한	낙담한	불안한	의기소침한
상쾌한	활기 있는	흐뭇한	희망찬	담담한
골치 아픈	불쾌한	실망한	쓰쓸한	불만스러운
기대되는	흐뭇한	뿌듯한	짜릿한	고무적인

교회행사

3월

1일	진공첫 6기 모집 마감
5-21일	해비타트 사역
7일	부부사랑 학교 개강
8일	진공첫 6기 시작
12/14일	1차 세례 교육
19/21일	2차 세례 교육
21일	세례 문답식
22일	세례식
29일	종려주일 / 성찬식
30일-4일	고난주간/고난주간말씀과 기도

4월

5일	부활주일
11일	신중년 아유회
24-25일	목자 수련회

경배 찬양

주 광대 하시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선교

[전세계, 조이플선교사]

우즈베키스탄

1. 팀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연합 사역을 이뤄가도록
2.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3.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4.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과 은혜가 동역 교회들과 동역자들에게 흘러넘치도록

소식

1. 세례식

3월 22일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문답식은 3월 21일(토) 오후 5시부터 세례식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 국내 의료 선교

의료선교회에서 5월 5일(화) 순창 구미중앙교회로 의료선교를 갑니다. 함께하실 의료팀, 지원팀 총 40명으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문의) 김광태 집사 010-6600-9724

한 문장 큰 울림

“선한 생각으로
요새를 짚지 않으면
나쁜 생각의
희생자가 될 뿐이다”

- 칼 헨리 -
(복음주의 신학자)

[요한복음 12장 46절] “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12장은 [표적의 책], 13-21장은 [영광의 책]이지요 이렇게 나누는 근거는 1-12장까지 7가지의 중요 표적이 연속으로 등장하고, 13-2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1-12장의 전체 내용의 핵심을 다시금 정리하고, 이어지는 13장부터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_예수님은 하나님이다 (44-45절)

[요12:44-45] 44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신적 선언’ 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규정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으며,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잘못되었지요 (예시 : 삼위하나님을 얼음-물-수증기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

우리는 이 진리를, 이성과 논리가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입니다.(요 1:1) 만유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 라는 진리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도전/격려로 다가오나요?

2_어둠에서 빛으로 (46-48절)

1) 예수님의 사명 - 어둠에서 빛으로

[요한복음 12: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단은 지속적으로, ‘여기, 보이는 것이 전부’ 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속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과 세상의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의 마땅하고 당연한 반응은 빛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나아가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 사람들의 반응 - 거부, 애매, 영접

요한복음 1-12장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빛되심을 명확히 선포하십니다. 그 때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저버리는 사람들,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 ① **저버리는 자** -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지며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 합니다.
- ② **애매한 태도** - 예수님이 진리인 줄은 알았으나, 이에 대해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출교가 두려워 말하지 못합니다. 이는 곧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태도였지요
- ③ **받아들이는 자** -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에, 물 떠온 하인들은,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았지요 맹인은 눈을 뜬 이후 출교를 당했으나, 예수님을 보고 경배합니다.

[나눔]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오늘 나는 어떤 태도로 서 있나요? 스스로를 점검하며, 함께 생각해봅시다.

	애매	
거절		환영

3_영생의 말씀 앞에 (49-50절)

[요한복음 12: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곧 영생의 말씀 앞에 고백과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21-22]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아가 위와 같이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동시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보내십니다. 평범해보이는 일상은 이 부르심을 순종함으로 살아낼 하나님 나라 회복의 현장입니다.

[나눔]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 살아내야할 나의 일상의 자리는 어디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나눔	[어둠에서 빛으로 / 요한복음 12장 44-50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 점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나라를 세우기며 말씀을 비추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마음 다해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영생의 말씀 앞에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삶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주님의 보내심, 충성으로 살아내겠습니다.